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세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사순절(四旬節) ...내달 22일까지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자”

사순절이란 부활절 이전 여섯 주간에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말한다. 그래서 사순절의 첫 날은 항상 수요일로 시작되며 이 수요일을 성회(聖灰)수요일(재의 수요일; Ash-Wednesday)이라고 부른다.

4월 넷째 주일인 23일에 부활절을 맞는 올해의 사순절은 지난 3월 8일에 시작됐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발자취와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참회하는 기간이다. 또한 근신과 자기 절제와 경건의 생활에

더욱 힘쓰는 영적인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각 교회학교의 교육을 통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배우게 된다. 특별히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으심과 구속의 사역을 묵상하며 온 교회가 해 있는 동안 금식하는 날로 선포하기도 한다. 부활절에 행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기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

시는 은혜를 좇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고난의 참 의미를 진지하게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자의 회개와 근신과 새로운 결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가 구속과 부활의 참뜻을 증거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 3월 테마전도주일 ■

26일(다음 주일)은 아직 안 믿는 남편(혹은 아내)와 함께 교회에 오는 날입니다.

사순절 동안 회복의 삶을

고정선(목사, 청년부 지도)

현대의 크리스천은 몇 가지 절기 이외에 대해서는 절기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져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분명히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우리의 신앙 태도이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한 구원역사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각자의 삶에 진지하게 적용시키는 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을 기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며 그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사순절(四旬節)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사순절의 유래

이 절기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주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제정된 교회법 5조에서 비롯된다. 사순절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며 그에 동참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 40일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노아의 홍수기간(창 7:17), 모세의 시내산 체류기간(출 24:18), 가나안 정탐군들의 정탐기간(민 13:25), 예수님의 광야 금식기도기간(눅 4:1~2) 등 고난의 의미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주일

(主日)을 제외한 평일로 부활주일 전 40일을 규정했다. 따라서 부활주일로부터 거꾸로 세어서 46일째 되는 날인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다.

사순절의 전통적 신앙형태

초기 수 세기 동안에는 금식의 준수가 엄격히 지켜졌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지기 전까지 먹을 수 있는 하루 한끼의 식사만이 허용되었으며, 물고기와 육식 그리고 달걀과 우유로 만든 음식까지도 엄격히 금지되었다. 그러나 9세기 이후 서구에서는 이런 관습이 상당히 완화되어 금식을 행하는 시간은 오후 세시까지로 앞당겨졌고 13세기부터는 음료수와 가벼운 식사가, 15세기부터는 물고기와 우유를 포함한 식사를 정오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금식은 회개와 근신, 절제와 갱신의 삶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종교적 행사를 많이 가져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다.

사순절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에 이르러서 사순절은 금식보다는 구제와 경건 훈련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지

배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 사순절에 우리는 다시금 그 무한한 사랑에 붙잡혀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일에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사순절 성도의 삶

사순절의 바람직한 삶은 애도, 참회, 절제, 경건, 나눔 등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애도나 참회의 주제로는 성회 수요일 새벽(저녁) 기도회, 절제의 주제로는 축제 가무 등을 절제하기, 자신의 기호품 자제하기, 한끼 금식하기, 화려한 옷 안 입기 등을, 경건의 주제는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예배 출석하기, 기독교 성서 순례, 성화 성서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나눔의 주제로는 1인 1명 전도하기, 금식하여 절약한 돈으로 북한 어린이나 결식아동, 독거노인 돕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사랑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는 삶을 경험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무엇보다 나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고백이 분명하게 되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사야 강해

에돔의 죄와 형벌

이사야 34장 5 - 17절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으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에돔의 조상 에서는 이스라엘 조상 야곱과 적대관계였습니다(창 27:41, 32:7).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에돔은 그들의 경내를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들 거절한 국가였습니다(민 20:14). 다윗이 그들을 정복했으나 에돔은 여호람 때 다시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왕하 21:8 - 10). 에돔은 남왕국 유다의 가장 어려운 대적자로 아하스 왕 때 유다를 쳤고(왕하 28:17),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항상 환을 품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기뻐했습니다(시 137:7).

1. 하늘의 작정

하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택한 백성의 원수 에돔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었던 것입니다(5절).

에돔은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이 가차없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는 에돔은 그 백성이 수다히 죽을 것입니다.

에돔을 그렇게 벌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잔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벌을 허물할 것이 아니고 에돔의 죄가 얼마나 크고 혹독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내린 벌은 비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합당한 것이고 그들의 과거에 지은 죄는 소름이 끼칠 만큼 악하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 중의 하나로 사해 동남쪽에 있는 수도 페트라에서 6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스라가 여호와를 위한 희생의 제물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고 큰 살륙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2. 에돔에 하나님의 보복이 임할 것이다

에돔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못하게 한 죄로 인하여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8절).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통했는지 하나님께 신원을 했고 그에 대한 보복이 에돔에 있게 된 것입니다.

(1)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시내들이 변하여 역청(아스팔트)이 되고 그 땅이 불붙는 역청이 되며 티끌은 유향이 된다는 것은 에돔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에돔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

하나님의 말씀은 상호간에 일치합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1600여 년 간에 걸쳐 제각기 다른 지역에서 기록했으나 일치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백은 여호와와 그의 백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짐승들)을 에돔의 폐허 위에 모으셨습니다(16절).

하나님께서서는 들짐승들을 에돔에 거하게

"여호와와 같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흰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향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당이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너희는 여호와와 그의 백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백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은즉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사 34:5 - 17)



이종운 목사

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게 될 것입니다.

(2) 에돔에는 금수들이 살게 된다

여호와께서는 에돔 땅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드리우실 것이라고 했습니다(11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에돔에 혼란과 공허를 지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에돔은 당이새와 고슴도치 그리고 부엉이와 까마귀 같이 습지와 호젓한 지역에 나타나는 동물이 들끓게 되고 들짐승의 거처가 됩니다. 에돔의 옛터는 부엉이와 솔개의 거처가 되고 활뿔들이 사는 황무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3) 국가 재건을 이끌 왕도 방백도 없다

국가에 지도자가 없는 것은 큰 저주입니다.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무성하고 견고했던 성에는 엉겅퀴와 새싹이 무성해서 시랑(여우 종류)과 타조의 거처가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보스라의 궁궐이 불로 파멸될 것을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암 1:12).

3. 여호와와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라

위에 언급된 동물들이 반드시 에돔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했고 이사야를 통해 주신이 말씀은 결국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록된

하시려고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17절).

하나님은 그것들을 위해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띠어" 라고 하셨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깃으로 나눠주실 때 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에돔 땅을 들짐승과 새들에게 나누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원수들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은 예언대로 망할 것입니다. 심판날에 교회의 원수들은 망할 것이며 그 표본이 에돔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미나, 그 따뜻함에

하영수(장로,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원감)

오래 전에 목회자세미나에 참석했던 강원도 산골 어느 작은 교회의 목사님께서 이웃 마을교회가 불에 타고 잿더미가 되었으나 복구는 고사하고 아직도 칼바람에 입을 옷과 끼니조차 어렵다는 걱정의 소리를 하셨다. 어떤 농촌의 목회자는 옮겨가신 사역지를 물어 물어 찾아 전화로 문안했더니 무척이나 반가와하고 짧은 통화임에도 그렇게 고마워하셨다.

우리 교회가 제 17학기 목회자세미나 개강을 앞두고 여전도회원들이 그동안 참여한 교회의 교역자 근황을 정리할 때 나타난 반응들이었다. 이 일로 많은 권사님과 여집사님들이 많은 예를 썼으나 결론은 서로에게 큰 유익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올해로 9년, 열 일곱번째 목회자세미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서울교회를 향한 크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나 건물도 없고 빌런 시설도 그렇고 교통편도 여의치 않고 주차장은 더욱 좁아서 오신 분들 마음 상해하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보잘것없는 김밥 한 줄과 질리다 싶을 컵라면 가지고 우리가 족하다고 할 수 있으랴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단일 교회로서 9년이나 계속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서울교

회의 사역 속에 있고 농어촌 100교회를 끈끈히 이어가며 돕는 자지만 정겨운 소식들과 온 교회의 변함없는 따뜻한 정성이 새벽밥을 지어 기도도 맡아 바치는 할머니 권사님들의 손에 녹아들고 지하 주차장에서의 정중한 안내와 현관에서의 따뜻한 영접과 4층 홀

안에 가득한 성도들의 영접의 열기가 컵라면에 부어지니 가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어쩌면 많은 사역자들은 그들이 속한 교회의 양들을 양육하는 데 힘이 들고 복음 전파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부단히 스스로의 갱신을 위하여 오시는 그들의 끈하고 지친 심신을 우리가 잠시라도 따뜻하게 영접하고 위로하는 것

은 여름 가뭄에 냉수 한 그릇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

교회 갱신은 칼날 같은 진리 위에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유별난 세미나가 교회 간에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는 기회로 이어지며 습관적이고 기능에 치우친 행사가 아닌 새롭게 하려고 부단히 개발하고 노력하며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는 교육 장소로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

민족교회를 위한 봉사자가 되자

제 17학기 목회자세미나에 수고하실 분 모집

제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3월 27일(월) 개강하여 매주 월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목회자세미나는 지금까지 우

리 교회 봉사자들의 힘으로 원활히 진행돼 왔다. 이번 학기 목회자세미나도 식사준비를 비롯 차량관리, 안내 등 각 분야에서 수

고하실 봉사자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봉사에 관한 문의 및 신청은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할 일	요일, 시간, 봉사할 곳	필요한 인원
식사 재료 구입	토요일	운전 가능한 남자· 여자 성도 한 분
강의안 편찬, 제본	토요일 오후 3-5시, 사무국	여자 집사 두 분
교재 및 유인물 준비	주 일 소망부 집회 후, 소망부실	모세선교회원
식사 준비	월요일 오전 6시-10시, 식당	에스터· 한나· 사라전도회원
집꾸리고 이동하기	월요일 오전 9시-11시, 사무국	남자성도 다섯 분
식탁,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월요일 오전 10시-12시, YMCA 4층	남자성도 열두 분(3인 1조로 4개 조)
차량관리(Y정문, 지하, 양지아파트)	월요일 오후 1시-3시	남자성도 일곱 분
안내(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월요일 오후 12시 30분-3시, YMCA	여자 안내위원 열 두 분
등록 및 접수	월요일(첫 두주) 12시-오후 4시, YMCA 4층	열 두 분(3인 1조로 4개 조)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월요일 오후 12시 30분-3시, YMCA	여집사님 네 분
교회에서 봉사(전화안내)	월요일 오후 1시-4시, 사무국	여자성도 한 분
배식, 간식 및 음료수 대접	월요일 오후 12시 30분-4시, YMCA	여전도회원
교재 및 유인물 배부	월요일 오후 12시 30분-3시, YMCA	모세선교회원
식탁, 접수탁자, 교회물품 정리	월요일 오후 3시 30분-4시 20분	남자성도 열 분
강의실 의자 철수, 청소, 정리	월요일 오후 5시 30분-6시, YMCA	남자성도 열 분
철수한 교회 물품 정리	월요일 오후 4시-, 사무국	남녀성도 각 세 분씩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다락방

고정숙(집사, 역삼5다락방장)

던 사회적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옛적 모습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들떠 보았었나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세속적

인 대중문화 속에 파묻혀 믿음마저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성도간의 교제조차 개인적인 현실에 묶여 소극적이기 십상입니다.

차체에 우리 역삼 4·5다락방 식구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다락방 모임은 남녀 연합으로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가졌습니다.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다락방장인 저 역시도 이 모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그날 모임을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도 목사님은 예배소서 5장 15-21절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령충만한 생활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기쁨으로 변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락방은 한달에 한 두번은 남녀연합다락방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 아름답고 귀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 소식

주차 공간 확대

주일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다. 새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주차장은 한빛은행 주차장과 필라(FILA) 앞 주차장이다. 관리위원회(위원장 박두호 장로)에서는 주일에 교회당 지하와 교회당 앞뜰 등 가까운 주차장은 새신자나 장애인들에게 양보해 줄 것과, 하루 종일 봉사하시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되도록 먼 곳에 주차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기대되는 전도회 활동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종시 장로)는 지난 주 남녀전도회 회장단 모임을 가졌다. 회장단 모임에서는 대신자 카드 제출 및 대신자 관리(전도편지 발송 등), 전도회별 내실 있는 프로그램(세미나, 특강 등) 개발 및 전도회를 통한 전도사업, 서울성경대학 리더양성반(다락방장반), 농어촌100교회 지속적인 지원 등의 활동에 전도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4월 첫 주 남선교회 헌신예배와 4월 8일(토)에 있을 육사세례식, 탈북자를 위한 의류수집에 전도회 회원들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탈북자를 위한 옷 모으기

구제위원회(위원장 김광신 장로)에서는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의류를 수집하고 있다. 성도들은 손질한 의류, 신발, 장갑, 모자, 이불 등을 3월 22일(수)까지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은빛찬양대’ 대원 모집

은빛찬양대(대장 이용선 장로)에서는 대원을 모집하고 있다. 자격은 65세 이상 세례교인이며 신청 접수는 3월 31일(금)까지이다. 신청 및 문의는 사무국. 은빛찬양대는 4월부터 매월 1회 수요 I부 예배 시 찬양을 드리게 된다.

유아부 학부모회 구성

유아부(부장 전기섭 장로)에서는 학부모회를 구성했다.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박은정(김지오 어머니), 부회장 김현주(김성환·지수 어머니), 총무 정혜순(김태현 어머니)이다. 유아부 학부모회는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대영 전도사(유아부 지도)는 “많이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양육된다는 놀라운 법칙에 감사하면서 후원회를 구성한 것” 이라고 밝혔다.

■ 동정 ■

- * 권오철·박영애 집사(11교구) 가정은 13일(월) 득녀했다.
- * 김영화 집사(9교구)는 서울 경찰청 신우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 * 이반 주 식사는 손성운 집사·김숙자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 뵈뵈전도회는 20일(월) 새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2000년 대신자 명단(지난 주 계속)

전도자	대신자
임상현	윤승진 노준구
박명석	김원석 박찬주 김경리
임옥곤	박준형
조봉환	최남순 김진혁 조유현

- * 대신자를 위한 기도회가 매주 수요 I부 예배 후에 403호실에서 열립니다.
- * 대신자 명단은 다음 호에 계속 게재됩니다.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제 7학기 서울성경대학 신청 접수 중

3월 27일(월)부터 시작될 서울성경대학 제 7학기의 수강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등록금은 각 과목당 1만원이고 이번 학기에 처음 수강하는 성도에 한하여 입학금 5천원을 별도로 받는다. 신청서는 각 과목 개강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학기에는 새 예배당 시대를 대비해

각 과목은 3월 말 개강하여 10주간의 강의가 계속되며 5월 말 혹은 6월 초 과목별로 각각 종강하게 된다.

서울성경대학은 말씀 공부를 통해 신앙성숙을 도모하고자 신구약성경 전체를 강좌 과목으로 하여 학기제로 운영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구 개편을 앞두고 강화된 리더양성반(L.T.C.: 다락방장반)을 비롯하여 여호수아반, 신명기반 등의 강좌가 개설됐다. 또한 음악교실도 예년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개강일
여호수아	월 오전 10시 30분	지혜영 전도사	3월 27일
신명기	화 오전 6시	이규정 목사	3월 28일
리더양성반(L.T.C.) * 다락방장반	수 오후 1시	이종은 목사의	3월 29일
	수 오후 8시 30분		3월 29일
	목 오전 6시		3월 30일
음악교실	목 오전 10시 30분	허희철 집사 이연숙 권사 안진선 선생	3월 30일
	목 오후 7시 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와 참회의 삶을 살도록
2. 제 7학기 서울성경대학과 제 1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대신자들과 70인전도대 활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전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외약도

